

# 大學 - '큰 배움' 을 위하여



이현우 (컴퓨터공학부 04학번)

## 1 꿈을 되돌아 보며

이제 곧 3월. 대학에서의 3월이면 개강이라는 새로운 출발과 함께 처음으로 대학생이라는 이름표를 달게 되는 '새내기' 들이 떠오릅니다. 지금쯤 대학생활에 대한 기대로 가득차 있을 '예비 새내기' 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한번쯤 대학 입학 전에 무엇을 꿈꾸며 대학에 들어왔나 되새겨 봅시다. 대학생이 되면 꼭 미팅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졌던 사람도 있겠고, 이제껏 수능이라는 이름 아래 나를 얽매고 있던 답답함에서 벗어나 참 공부를 꿈꾸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서로 자유롭게 생각을 이야기하는 토론식 수업을 꿈꾸기도 하고, 책에서만 공부했던 것을 실제 확인하는 실험을 꿈꾸기도 했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대학을 기대하며 답답함이나 시간에 쫓기는 일을 연상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앞의 꿈들이 대학 생활을 접하고 나서 단지 '꿈' 으로서 전략하는 사례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런 현실에서 안타까운 마음에 글 몇 자 적어보려고 합니다.

## 2 목적을 상실한 공부

오늘날, 공부의 목적을 상실한 채 편한 수업, 쉬운 수업이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학점의 집착이 이를 보여주는 사례겠지요. 제가 1학년 1학기 때 영어 수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첫 시간에, 수업 내용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지요. 수업은 일주일에 두 번이었는데 한 번은 한 조가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한 번은 별도의 재미있는 활동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의 수업 구성에 따르면 마지막 3주 정도는 발표할 조가 없을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때 교수님이 직접 수업을 하시거나 원하는 조에서 추가 프리젠테이션을 해도 좋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그리고 나서 강의 수업 내용 혹은 방식에 대해 질문이 있으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추가 발표하면 추가 점수가 있나요? 학점이 한 그레йд 올라간다거나...." 질문 있으면 하라는 교수님의 말씀이 있자마자 나온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답변은 "물론입니다"라는 대답이었지요. 이런 종류의 대화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숙제는 얼마나 되는지, 힘들지는 않은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졌습니다. 수업을 몇 번 들어본 적이 없는 제겐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 수업 때 말고도 이런 경험은 몇 번 더 있었지요. 어느새 수업 그 자체보다도 학점이, 그리고 힘들지 않은 수업이 우선이 되어 버렸습니다. 수강신청을 할 때를 돌이켜 볼까요? 교양과목을 선택할 때 학생들이 어떤 과목에 많이 집중되나요? 학점을 잘 주는 수업, 숙제와 시험이 별로 없는 수업을 우선 찾습니다.

---

### 3 함께 살기 위한, 사람을 살리는 공부

이는 대학에서의 공부가 '왜'라는 질문은 사라진 채 성공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더 높은 지위, 더 편한 생활, 더 화려한 생활에 대한 소망과 서울대라고 하는 기득권은 왜 공부하는가 혹은 무얼 위한 공부인가라는 물음에 대답하는 것을 잊게 만들었지요. 사회는 점차 개인주의화 되어가고, 나 자신만이, 나의 행복, 나의 성공만이 최우선이 되어가면서 다른 사람은 신경쓰지 않고 내가 잘 살기 위한 무한 경쟁의 소용돌이로 빨려갑니다. '꽃들에게 희망을'에 보면 두 마리의 애벌레가 등장합니다. 기둥을 발견한 애벌레 한 마리가 그 기둥을 올라갑니다. 이유는 따로 없습니다. 남들이 다 오르기 때문이지요, 우리도 비슷하지 않나요? 고등학교 때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행복하게 살 것이라는 달콤한 말로, 어떤 행복한 삶인지에 대한 논의도 없이 너도나도 수능이라는 기둥을 올라갔죠. 다 오르고 대학에 들어오니 기다리는 것은 대학에서의 학점 경쟁이라는 새로운 기둥 아니었나요? 기둥에 오르지 않더라도 나비가 될 수 있는데, 웬지 사회가 만든 강박관념에 나 역시 따르지 않는다면 도태될 것 같아 오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맹목적으로 오르다가 결국 몇 사람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짓밟고 오르기도 하죠. 하지만 죄의식은커녕 경쟁 사회에서 그것은 마치 당연한 것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안타깝습니다.

함께 살아가기 위한, 사람을 살리는 공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에 만연한 경쟁의 논리는 '적자생존'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경쟁에서 승리한 자는 잘 살고, 그렇지 못한 자는 먹고 살기도 힘든 시대가 되었지요. 공부는 나와 나의 대립 속에서 나의 승리를 위한 공부가 아니라 나와 내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공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문계에서 창출된 사상이 나 하나 먹고 살기 위한 사상이 아니라 함께 올바른 사회를 꿈꾸며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상이 되고, 이공계에서 만들어진 기술이 나의 명예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모두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기술이 될 때 그 공부는 의미있을 것입니다. 그 때의 공부는 경쟁을 통한 승리의 공부가 아니라 모두에게 힘이 되는 목적의 공부가 되겠지요. 그 때에 비로소 의미로운 참 공부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

### 4 대학 : 큰 배움의 공간

기둥을 다 오른 애벌레가 본 것은 아무것도 없는 기둥 위였습니다. 너도나도 하기에 그 분위기에 휩쓸려 나도 하였더니 그 결과는 '허무'였다 것입니다. 애벌레가 나비를 알게되지 않았다면, 기둥에 끝까지 오른 애벌레는 다시 다른 기둥을 올라갔을지도 모릅니다. 대학기간이 나비를 발견하는 기간으로 인식되면 좋겠습니다. 대학생은 흔히 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준사회인'이라고 불립니다. '준사회인'으로서 사회에 나가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대학 기간 동안 왜 공부하는가, 무엇을 위한 공부인가라는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교수님과 학생들 사이에, 혹은 선후배나 동기들 사이에서 이러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대화의 장이 활성화되어야겠지요. 공부의 목적이 회복되었을 때 대학 입학 전에 꿈꾸었던 대학 생활의 희망이 단순한 꿈으로만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논의로 가득찬 대학은 사회를 올바르게 이끌어갈 지도자를 양성하는, '큰 배움'이라는 이름이 아깝지 않은 공간이 될 것입니다.